



## 〈제22회 한국전자전 결과분

# 전자산업 부문별 전시로 효율적 관람, 큰 호응

제22회 한국전자전람회(Korea Electronics Show)가 사상 최대 규모, 최대 실적을 올리며 대성황리에 6일간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특히 금년은 전자전을 개최한지 22회가 되는 뜻깊은 해로서 2000년대에 선진 전자공업국으로 도약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1. 개 황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동안 한국종합전시장 본관과 별관에서 제22회 한국전자전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그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국제 전자쇼로서 국내외의 전자공업인은 물론 외국의 바이어 그리고 경제 등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세계로 내뿜는 치열한 경영장이었다.

10월 17일의 개막식에는 이봉서 상공부장관, 김철수 KOTRA 사장, 박용학 무역협회장, 유장순 전경련회장, 등 귀빈과 전자업계에서는 구자학 전자진흥회장, 고명철 전자조합 이사장, 강진구 삼성전자 회장, 김정덕 전자부품연구소

장, 윤봉수 남성 사장, 김정식 대덕전자 사장, Y·G·Bouwkamp 필립스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한 후 이번 전자전 개요 설명을 들은 각계의 귀빈들은 본관 1층의 산업용기기관과 3층의 부품 및 외국관 그리고 별관의 AV (오디오와 비디오) 부문을 KOEX 별관에 분리 전시하여 부문별 전문화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중소출품업체의 수출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 상담코너를 설치하는 등 내한한 바이어들의 쾌적한 수출상담은 물론 관람객들의 효율적인 관람에도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성과 분석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던 금년 전자전은 전시면적으로 KOEX 본관 건물 1층과 3층 그리고 별관을 이용하여 8,550평 (28,224m<sup>2</sup>)에 이르러 작년에 비하여 2,200여 평이 늘어졌으며 출품업체로는 19개국 573개사가 참가하여 국가수로는 작년과 동일하다 업체수로는 48개사가 증가하였다.

참가업체 중 국내업체로는 금성,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다양한 부품업체에 이르기까지 335개사가 참가하여 작년과 비교하여 21개사가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업체로는 미국의 Molex, Elco 등,

일본의 일립, 동구, 송하 NEC, TDK 등을 비롯한 238개사가 참가하여 작년에 비하여 27개사 증가하였다.

국내별 참가업체를 살펴보면 일본이 73개사, 미국 23개사, 홍콩 11개사, 대만 10개사, 독일 8개사 등으로 작년에 56개사가 출품하였던 일본업체가 73개사로 증가된 것이 눈에 띄고 있다.

### 가. 출품동향

금년 전자전의 출품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제품이 305종 69,000점, 외국제품이 175종 20,000점으로 총 480종 89,000여점이 출품되어 작년에 비하여 5종 7,000여점이 증가되었다.

금년에 최초로 선을 보여 관람객의 눈길을 끈 제품들을 보면 PC의 소형화 추세로 책상에 놓는 데스크 톱에서 휴대하기 편한 노트북 형으로, 또 손바닥만 팜톱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펜을 이용하여 입력이 가능한 컴퓨터를 중심으로 광대역 CATV 방송시스템 등의 뉴미디어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또한 자동화의 추세도 두드러져 컴퓨터에 의한 설계 통계, 가공, 조립 등의 공장자동화장치 등이 산업용기계부문의 주류를 이루었다.

비디오부문에서는 고화질화가 두드러져 일반 TV방송 화면보다도 더욱 선명한 S-VHS VTR의 400분 수평해상도를 실현하였으며 36만 영상 입자의 고감도 CCD(CHARGE COUPLED

表 1. 주요 국가별 참가업체 현황

제17회(1986년)		제18회(1987년)		제19회(1988년)		제20회(1989년)		제21회(1990년)		제22회(1991년)	
국	명	국	명	국	명	국	명	국	명	국	명
일	76	일	50	미	54	일	65	일	56	일	73
	(38%)		(25%)		(26%)		(29%)		(27%)		(31%)
미	49	미	38	일	49	미	51	미	18	미	23
	(25%)		(19%)		(24%)		(22%)		(9%)		(10%)
영	7	대	8	서	10	대	11	홍	12	홍	11
	(4%)		(4%)		(5%)		(5%)		(6%)		(5%)
스	6(3%)	향	6(3%)	대	8(4%)	향	11(5%)	독	11(5%)	대	10(4%)
서	5(3%)	서	4(2%)	향	7(3%)	서	9(4%)	대	7(3%)	독	8(3%)
대	5(3%)	네	3(1%)	싱	4(2%)	싱	5(2%)	싱	4(2%)	싱	5(2%)
기	50(24%)	기	92(46%)	기	100(49%)	기	76(33%)	기	103(48%)	기	108(45%)
계	198	계	201	계	203	계	228	계	211	계	238



DEVICE, 고체 촬상소자)을 채용하여 머리카락까지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8mm 캠코더, 특히 일부제품의 작동에 있어 육성인식이 가능한 TV 및 VTR 제품도 선보였다. 오디오부문에서는 초소형화가 진전되어 초미니 콤포넌트각 업체에서 출품되었으며 LDP, CDP, DAT가 복합된 첨단 AV시스템 (AUDIO & VIDEO) 등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전자전에는 첨단센서를 내장하여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재, 방범,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홈 서비스 로봇까지 선보여 미래 가정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전자부품에서는 초소형화된 칩 제품과 고집적화된 반도체 칩 제품들로 이번에 출품된 16M DRAM은 신문지 128페이지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으로 첨단 전자산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파장해 대형부품과 브라운관, 그리고 각종 센서와 다양한 전자재료 및 소재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외국업체들의 출품동향은 고화질 대형TV, 차세대 미디어-DCC (Digital Compact Cassette) 등의 가전제품과 초정밀 계측기기, 생산자동화 시설 및 SMD 등 산업용기기와 반

도체, 센서, 기초 소재부품 등 첨단 전자부품들을 출품하여 향후 우리 전자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나. 거래상담 동향

이번 전자전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수출환경 및 분위기를 감안하여 다소 거래상담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적극적이고도 치밀한 사전 홍보 활동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작년 수준을 약간 웃도는 거래상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과도 연계가 되는 외국 고위인사 참관 현황을 보면 리투아니아 공화국 수상 및 각료 일행과 에디오피아 대통령 특사 일행 등이 관람하여 우리의 전자산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의 전자제품을 찾아온 Buyer들로부터 관심이 높았던 품목들을 보면 미국지역의 Buyer들은 전 품목에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및 노트북형 컴퓨터, 디지털 계측기, 비디오 폰, CDP, 하이브리드IC 등 반도체 칩 제품 등 이고 유럽지역의 Buyer들은 카스피커, 카CDP 등의 카오디오

제품들과 칼라TV, 소형라디오, CB트랜시버, 위성방송수신기, 홈서비스 로보트, 스위치 등의 전자부품, 그리고 면도기,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등의 전기용품 등으로 동남아시아의 카오디오제품, 인터폰, 비디오, 면도기, 헤어드라이어 등의 생활 전기용품, 계측기, 스위치, 릴레이, 하이브리드 IC 등 칩제품과 배선기구 등이고 중남지역의 Buyer들은 C-TV, 카오디오, CDP, 뮤직센터, CB트랜시버, 카드리더, 자동차경보기, 하이브리드 IC 등 반도체 칩제품, 비디오테이프 등이며 중남미지역의 Buyer들은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카오디오, C-TV 등 가전 제품에 주로 편중되었다.

특히 합작공장 건설을 요청해 온 경우는 소련의 무선전화기, 유고의 위성방송수신기 방글라데쉬의 비디오 테이프 등이다.

이번 전자전을 참관한 외국 Buyer들은 예년과 달리 금년의 전시를 부문별 전문화를 통한 한껏 세련된 운영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제품에 있어서는 동남아산 일본제품과의 가격차를 낮춰 줄 것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전자산업의 제모습을 보여준은 물론 앞으로 우리 전자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다. 부대행사

##### (1) 전자부문 신제품 경진대회

금년의 전자전에도 중소·중견 전자업체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개발에 기여한 기술인력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물론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유도하여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부문 신제품 경진대회가 치루어 졌다.

대상을 금년 전자전에 참가하는 중소·중견

##### <개발공로자 시상>

훈 격	업 체 명	개발공로자	개 발 제 품
<b>&lt;산업용부품&gt;</b>			
최우수상	(주)대양기전	실장 정영근	부품실장자동검사기
우수상	(주)웨스트	이사 김희상	공정제어용 분산처리 시스템
장려상	중앙전자(주)	대표 정상은	컴퓨터 음성입력용축, 편집, 재생, 출력, 시스템
<b>&lt;가정용부품&gt;</b>			
최우수상	태광산업(주)	과장 이홍준	미니컴포넌트
우수상	(주)인켈	과장 정한규	스테레오 A/V 프로로직 레시바
장려상	(주)신화테크	주임 라인식	전화번호 확장장치
<b>&lt;부 품&gt;</b>			
최우수상	(주)세라텍	이사 안병준	칩레라이트 비드
우수상	(주)에이스안테나	대리 서태원	비가역성 대칭기
장려상	삼원전기(주)	부장 강계수	초소형 텍트스위치
	예전시스템(주)	주임 김순영	습도센서

表 2. 韓國電子展의 年度別의 實績

항 목	년 도	1969년	1974년	1975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제1회	제5회	제6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기 간		11. 18~ 11. 25 (8일간)	11. 26~ 12. 3 (8일간)	10. 8~ 10. 25 (8일간)	10. 18~ 10. 25 (8일간)	10. 11~ 10. 18 (8일간)	10. 25~ 10. 4 (10일간)	10. 7~ 10. 16 (10일간)	10. 14~ 10. 20 (7일간)
장 소		국립공보관	덕수궁석조전	장충공원가건물	여의도전시장	여의도전시장	한국종합전시장	한국종합전시장	한국종합전시장
규 모(坪)		360 (1,188)	650 (2,145)	800 (2,640)	1,600 (5,280)	2,100 (6,930)	2,850 (9,045)	2,260 (7,475)	2,755 (9,100)
참 가 업 체(A)		3개국 78업체	5개국 150업체	5개국 152업체	7개국 206업체	8개국 228업체	11개국 257업체	9개국 214업체	12개국 229업체
국 내 업 체		71	115	115	147	149	168	165	160
외 국 업 체(B)		7	35	19	59	79	89	49	69
B/A (%)		9	23	13	29	35	35	23	30
출 품 수(點)		72종 20,600	291종 42,000	321종 42,100	360종 40,000	403종 54,000	355종 57,000	365종 59,000	390종 63,370

# 제22회 한국전자전람회

기간 : '91. 10. 17 ~ 10. 22



1982년 제13회	1983년 제14회	1984년 제15회	1985년 제16회	1986년 제17회	1987년 제18회	1988년 제19회	1989년 제20회	1990년 제21회	1991년 제22회
10. 29~ 11. 5 (8일간)	10. 11~ 12. 17 (7일간)	10. 10~ 10. 14 (5일간)	10. 18~ 10. 23 (6일간)	10. 8~ 10. 13 (6일간)	10. 15~ 10. 20 (6일간)	10. 21~ 10. 26 (6일간)	10. 7~ 10. 12 (6일간)	10. 17~ 10. 22 (6일간)	10. 17~ 10. 22 (6일간)
한국종합 전시장별관	한국종합 전시장별관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본관	한국종합 전시장본관	한국종합전시장 본관및별관
3,600 (11,880)	5,400 (17,820)	4,000 (13,200)	4,600 (15,000)	4,770 (15,760)	4,770 (15,760)	4,920 (16,230)	6,284 (20,736)	6,300 (21,000)	8,550 (28,224)
12개국 280업체	12개국 330업체	14개국 380업체	14개국 445업체	15개국 460업체	15개국 465업체	18개국 475업체	15개국 520업체	19개국 525업체	19개국 573업체
196 84 33	221 109 33	210 170 45	244 201 45	262 198 43	264 201 43	272 203 43	292 228 44	314 211 40	335 238 42
403종 68,100	415종 72,600	420종 72,000	430종 73,000	430종 73,500	440종 75,000	450종 77,000	460종 80,000	475종 82,000	480종 89,000

表 3. 年度別 電子展 出品物의 特色

回数	年度	特 色
1	1969	단일品種 展示會로서 國內  최대규모, 外國人投資업체 半導體素子 展示, 國內業體 受動素子 中心의 展示, TV 및 라디오의  중점적 展示.
2	1971	TV, 라디오 및 機構部品  중심의 展示.
3	1972	Color TV  최초 展示.
4	1973	컴퓨터 및 Color TV의 展示, 外國人業體의  대규모  출품, 國內 大企業의  신규  참여.
5	1974	電子時計 展示, 교육용 CTR  示, 電子製品輸入原資材  示.
6		電子時計, Color TV, 민간휴대용무전기 등  海外需要急増品目의  中점  示, 신모델 開發製品(라디오, TV, 녹음기, 앰프 등)의  대량  出品, 産業用機器  出품  증대.
7	1976	컴퓨터 國內組立品, 금전등록기, CB트랜시버의  展示.
8	1977	太陽電池應用機器, 컴퓨터應用裝備, 電子式 自動交振器 및 輸出有望 開發機器의  展示.
9	1978	産業用 機器의  中점  示, 電子醫療機器 및 電子式  악기류  示.
10	1979	輸出可能品目  제품의  고급화, 節電型  製品  示.
11	1980	半導體 및 컴퓨터 國産化제품, 通信機器,  고신뢰성  電子製品,  高유  모델  開發品目의  展示.
12	1981	마이크로프로세서 應用 家庭用  電子機器의  展示, 오디오 및 비디오製品의  機能多樣化, 半導體 및  컴퓨터開發   심화,  製品小型化 및  高價品에  主력,  部品の  原料 및  素材開發로  國産化率   향상.
13	1982	國內業體의  Computer 및  周邊機器  展示, 通信機器  본격  出품,  家電機器에  Microprocessor  응용  활발,  電子部品の  精密·高品質化   추세,  外國業體의  설비 및  電子交換機.
14	1983	16Bit Computer 등  컴퓨터 機種의  본격  出품,  國産化의  급진전,  엮기 機種  출현.  光通信機器 및  DAD 등  展示,  超小型  VTR개발  展示,  精密  部品の  輕薄短小   추세.  Robot  機器의  본격  展示,  최신  자동화  시설  다수  出품,   전반적으로  家電  轉중으로  高度  技術의  産業用機器로  이전.
15	1984	Computer 및  주변기기의  高性能化,   응용  다양화,  高度화된  産業用機器의  新개발,  VLSI級  半導體,  衛星放送  受信裝置 등  輸出  有望  New Media機器 및  '86年, '88年  Olympic  有望製品  展示.
16	1985	多機能  컴퓨터 및  대용량의  補助記憶裝置 등  的  대거  出품,  高集積度  半導體 및  超精密部品·素材   개발,  Olympic  有望  商品   개발  展示,  輸出  有望  高機能  家電機器,  Laser  電子機器,  OA, FA, HA   관련機器.
17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世界   최초의  4mm  超小型  VTR-Camera+TV 一體型,  CD 및  CDP,  벽걸이  電子렌지</li> <li>• HA(Home Automation)  제품의  Network  소개.</li> <li>• 32Bit  小型  컴퓨터,  超音波  의료기기(단층촬영기),  光通信 및  計測機器,  無人倉庫管理시스템,  部品  自動挿入裝置   개발.</li> <li>• 國民  普及型  PC  40만원臺   개발(컴퓨터연구組合),  256K  SRAM,  積層  Ceramic  Condenser</li> </ul>
18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용량컴퓨터,  最新  尖端通信機器 및  醫療用  機器 등  産業用  電子機器.</li> <li>• 음성합성  VTR,  DAT 등  고급  다양화된  家電製品 및   올림픽  有望상품.</li> <li>• 1M  DRAM,  복합회로  多層基板 등  輕薄短小화된  Chip型  部品素材.</li> <li>• 最新  自動化  生産設備 및  精密計測機器,  高級  尖端部品 및  素材</li> </ul>
19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확대,  주변기기  확충</li> <li>• 産業用機器의   비중  확대,  磁氣記錄用  酸化鐵  粉末   개발.</li> <li>• CDP,  Car  Audio  기기의  高級化,  高速  팩시밀리,  디지털  計測機器·試驗機器</li> </ul>
20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利用한  工場,  事務,  家事  自動化  시스템</li> <li>• 高集積  半導體,  高性能  컴퓨터 등  2000年代를   주도할  尖端  電子製品</li> <li>• 高鮮明  大型TV,  캠코더,  디지털  오디오 등  뉴미디어  製品</li> <li>• 전과방해  검사장비 등  超精密  計測機器</li> </ul>
21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의  고성능화 및  초소형화,  컴퓨터를  利用한  가사자동화시스템 및  뉴미디어  기기</li> <li>• 영상기기의  다기능화(문자다중) 및  고해상화(S-VHS  VCR,  8mm  캠코더)</li> <li>• 光전자제품(光자디스크,  포토  커플러,  수광 및  발광소자,  포토  인터래터)</li> <li>• 혁신적  소프트웨어제품(지문인식시스템),  자동화 및  고정밀  SMC  제품 등</li> </ul>
22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의  초소형화 및  고기능화(노트북형  PC 및  팜톱,  펜으로  입력하는  PC)</li> <li>• 뉴미디어의  총아  CATV,  광통신  시스템,  광케이블  LAN</li> <li>• 첨단기능의  영상기기(음성인식  TV,  VTR),  대형화 및  고기능화(TV 및  VTR)</li> <li>• HA의  실용단계  제품(홈  서비스  로봇트-온도,  습도,  침입,  추락방지,  경보감지)</li> <li>• 인공지능 또는  뉴로퍼지  채용  가전제품</li> <li>• 16MDRAM 등  최첨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및  전자과  장애대책  부품</li> <li>• 자동계측제어장치 및  공장자동화  기기</li> </ul>

업체로 해서 산업용기기 10개사 11점, 가정용기기 5개사 10점, 부품 8개사 9점 등 총 23개사 30점이 심사대상이었다. 시상 방법은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상공부장관상) 3명, 우수상 (전자진흥회장상) 3명, 장려상 (전자진흥회장상) 4명 (부품이 2명)으로 학계, 관련기관,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품실장자동검사기를 개발한 (주)대양기전의 정영근 실장이 산업용기기부문 최우수상을 초미니컴포넌트를 개발한 태광산업(주)의 이홍준 과장이 가정용기기부문 최우수상을 칩 웨라이트 비드를 개발한 (주)썬라텍의 안 병준이사가 부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외에 7개사의 연구개발자들이 각부문별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2) 전자기술 세미나

이번 전자전을 학술적 분위기로까지 조성하여 산·학의 기술조화를 도모하며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국내에 소개한다는 목적으로 전자기술 세미나가 전자신문과 한국기술연구소 공동

으로 10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개최되었던 세미나는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자기술 세미나 일정 및 내용〉

강 의 내 용	강 사
<제1그룹> ○ 전자파 환경공학 개론 ○ ROBOT 등 자동화설비에서 노이즈 대책 사례 ○ 부품과 회로설계상의 노이즈 대책 ○ Radiated Conducted대책 사례 ○ System Level 노이즈 대책	통신개발연구소 방송정책연구실장 이상덕 박사 삼성공업(주) 메카트로닉스 안명규 개발실장
<제2그룹> ○ 한국의 종합유선방송의 현황과 국가정책 ○ CATV 방송기자재의 위성/설계/시공 ○ 영상전송로의 특징과 CATV의 노이즈 대책 ○ 영상 PROGRAM 편집기술	공 보 처 이창수 사무관 서강전자통신(주) 성주모 이사 한국기술연구소 민경찬 소장 KBS TV 기술국 오계환 부장

